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단권 축약본(새물결플러스 2015, 존 볼트 편)

바빙크 · 6장 신앙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단권 축약본(존 볼트 편, 새물결플러스 2015), 1부 교의신학 서론 6장 '신앙'(본문 첫 제목 '신앙, 그리고 신학적 방법론'), 209–260쪽. 꺾쇠 안의 숫자는 4권본 문단 번호 §130–160.

🧭 흐름 한눈에

바빙크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면, 사람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먼저 신앙의 세 측면인 지성·감정·도덕을 붙잡고 확신의 근거를 찾으려 한 세 방법을 차례로 검토한다. 역사 증거와 사변, 종교 경험, 도덕적 필요가 그것이다. 각각에 진리의 조각이 있지만, 어느 것도 신앙의 가장 깊은 토대는 되지 못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어서 계시를 받는 내적 원리는 '신앙'이며, 구원 얻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성경을 함께 붙잡고 고유한 확신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 확신의 최종 근거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고, 성경은 스스로 참됨을 증명하며, 모든 교의의 첫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이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신학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이고, 신학은 겸손과 경배로 끝나야 한다며 장을 닫는다.

📜 절별 정리

📜 1. 신앙, 그리고 신학적 방법론 (§130–131, 209–212쪽)

계시는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계시(외적 원리)에 짝이 되는, 받는 쪽의 원리(내적 원리)가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신성에 대한 감각'을 타고난다. 하지만 이 능력은 언어처럼 부모와 공동체를 통해 구체적인 종교로 배워진다. 그래서 대부분은 태어난 종교 안에서 죽는다. 신앙은 따져 본 뒤에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 살아내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빵의 재료를 묻지 않고 먹는 것과 같다. 바빙크는 지나친 자기비판을

그렇다고 성찰이 쓸모없지는 않다. 다만 신학에는 고유한 인식론(무엇을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고, 어떤 철학 체계도 신학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지성·마음·양심은 그릇일 뿐 내용이 없다. 그러니 이것들은 신앙의 원천이 될 수 없다. 결국 신앙에 관한 모든 물음은 하나로 모인다. “내 밖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느냐(자율).”

게다가 그 수용력은 죄로 부패했다. 그래서 두 원천이 함께 있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의 계시가 지식의 외적 원천이고, 성령이 내적 원천이시다. 로마 교회는 성령이 제도 교회에 거한다고 보지만, 종교개혁은 모든 신자가 성령의 증거를 가진다고 본다. 바빙크는 이제 지성·감정·도덕이 각각 낳은 세 신학 방법(역사적-변증적, 종교적-경험적, 윤리적-심리학적)을 차례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한다.

1. 계시는 주어지고, 또 받아들여져야 한다
2. 지성·마음·양심은 그릇, 내용은 바깥에서 온다
3. 신앙의 모든 물음은 결국 권위냐 자율이냐
4. 외적 원천은 성경 속 계시, 내적 원천은 성령
5. 성령의 증거는 제도가 아닌 모든 신자에게

> **고린도전서 2:14**
> 종교적 수용력이 죄로 부패했으니 성령이라는 내적 원천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
>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마태복음 11:27**
>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아들이 계시하시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지식은 선물이다
>
>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 **고린도전서 12:3**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 2. 신앙, 지성, 신학: 역사적-변증적 방법 ① 변증의 길 (§132–134, 212–216쪽)

교회의 첫 신학은 변증에서 나왔다. 변증은 공격에 맞서 신앙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일이다. 교회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앞에서 복음을 지켜야 했다. 2세기 변증가들(대표 인물은 유스티누스)은 흔들림 없는 확신에서 출발해 기독교를 '참 철학'이라 불렀다. 이방 세계의 참되고 선한 것도 만물을 비추는 로고스(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진리의 씨앗'으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결정적 차이는 분명히 짚었다. 그리스도의 성품,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성경의 고대성과 통일성, 예언과 성취, 기적, 약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이다.

그런데 중세 스콜라 신학(중세 대학의 논리적·철학적 신학)은 신앙의 진리를 이성의 내용으로 바꾸면서 자연과 초자연을 갈라놓았다.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에 맞서 교회 자체를 신앙의 가장 강한 기초로 삼았다. 그리고 외적 증거를 은혜를 준비하는 '신앙의 전제'로 여겼다(제1차 바티칸 공의회). 사다리를 오르듯 단계적으로 하나님께 이른다는 그림이다.

종교개혁은 신앙이 성령의 권위와 사역에만 기댄다고 했다. 그러나 개신교도 곧 증거 찾기로 돌아갔다. 칼뱅조차 성경의 신적 성격을 보이는 쉽다며 근거들을 늘어놓았다(『기독교 강요』 1권 7장 4절–8장 13절). 문제는 그 뒤에 퍼진 생각이었다. 증거만으로도 최소한 '인간적 신앙'은 생긴다는 확신이 이성을 신앙에서 떼어 냈다. 그 흐름이 결국 이신론(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손을 떼셨다는 사상)과 종교사학파(트뢸치)까지 이어졌다.

바빙크는 변증을 신자의 의무로 분명히 인정한다. 하지만 바른 변증은 신앙을 뒤따를 뿐, 계시를 먼저 증명하려는 일이 아니다. 끝없는 역사 검증에 확신을 걸면, 보통 신자의 구원이 '지성의 사제들'인 학자들의 결론에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1. 변증은 계시만큼 오래되었고, 신자의 의무다
2. 로마는 교회와 외적 증거를 신앙의 전제로 삼았다
3. 증거로 '인간적 신앙'은 생긴다는 생각이 이성 독립을 낳았다
4. 바른 변증은 신앙을 뒤따른다, 앞서지 않는다
5. 끝나지 않는 검증 위에 확신을 세울 수 없다

> **베드로전서 3:15**
>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에게 대답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 변증이 정당하다는 근거
>
>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 **디도서 1:9**
> 거슬러 말하는 자를 반박하는 일. 변증이 정당하다는 근거
>
>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이 거미줄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 3. 신앙, 지성, 신학: 역사적-변증적 방법 ② 사변의 길 (§135–136, 217–219쪽)

19세기는 계시와 이성이 갈라진 데 대한 반작용으로 주체를 중심에 둔 낭만주의와 관념주의로 기울었다. 관념주의는 세계를 정신과 의식의 산물로 보는 철학이다. 헤겔은 우주를 관념이 펼쳐지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삼위일체·성육신 같은 교의를 그 속의 관념을 감싼 상징으로 읽었다. 역사는 포장지일 뿐이고 알맹이는 철학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인격적인 하나님은 '절대관념'으로 바뀌었다.

바빙크는 헤겔과 슐라이어마허를 먼저 칭찬한다. 말은 지식인이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은 사고와 존재가 '서로 맞는다'에서 멈추지 않고 '같다'고 해 버렸다. 기독교는 다르게 가르친다. 만물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오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능력에서 온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은 이미 있는 세계를 전제하고 그것을 되비출 뿐이다.

바깥에서 온 재료를 버리고 순수 이성이나 감정에서 출발하면 내용 없는 일반 원리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학이나 '신앙론'으로 전락한다. 바빙크는 이것을 새로운 영지주의라고 부른다. 기독교는 논리 체계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가장 깊은 사상가도 권위와 신앙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남는다.

1. 헤겔: 교의는 관념의 상징, 역사는 포장지
2. 교회로 돌아간 공로는 인정한다
3. 오류는 사고와 존재를 '같다'고 본 것
4.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능력에서 온다
5. 기독교는 논리 체계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

> **고린도전서 1:18-25 (암시)**
> “십자가의 미련한 것을 세상 지혜로 바꾸지 못했다”는 슐라이어마허 평가의 배경. 바빙크가 장절을 달지는 않았다
>
> **고린도전서 1:18-25**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

역사 증명과 사변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많은 신학자가 종교적 경험으로 옮겨 갔다.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앎이나 행함이 아닌 '감정 상태'로 보았고, 교의학을 경건한 마음의 묘사로 보았다. 역사비평으로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자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확신의 근거가 되었다.

에어랑엔의 프랑크(1827–1894)가 이것을 체계화했다. 그에 따르면 확신을 주는 것은 성경·교회·전통이 아니라 중생(성령이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심)의 경험뿐이다. 진리는 그 경험을 중심으로 세 원을 이룬다. 첫째 원은 죄·칭의·완성, 둘째 원은 인격적 하나님·삼위일체·속죄, 셋째 원은 교회·말씀·성경·성례·기적·계시·영감이다. 성경과 영감이 가장 바깥 원의 '일시적 수단'으로 밀려난 것이다.

바빙크는 공정하게 인정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중생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옳다. 프랑크가 객관적 실재나 말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경험에서 신앙의 내용을 끌어내는 것은 존재와 앎,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확신을 섞는 일이다. 근대 사상의 전형적인 혼동이다. 그래서 바빙크는 “결국 프랑크도 주관주의자”라고 평가한다.

확신의 기초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아니다.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독교의 경험은 말씀이 일으키고, 신앙을 앞서지 않고 뒤따르며, 늘 성경으로 바로잡힌다. 사도신경의 “믿습니다”를 “경험합니다”로 바꿀 수는 없다. 성육신·십자가·부활·승천·오순절 같은 역사적 사실은 직접 경험할 수도 없다. 경험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면 각자 자기 종교를 만드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시편이 보여 주듯 경험은 경건에 꼭 필요하지만, 기준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다.

1. 프랑크: 확신의 근거는 중생 경험뿐
2. 그의 체계에서 성경·영감은 바깥 원의 수단
3. 존재와 앎, 진리와 확신을 혼동했다
4. 경험은 말씀이 낳고, 신앙을 뒤따른다
5. 신앙의 척도는 경험이 아니라 성경

> **이사야 8:20**
> 경험이 아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기준이다. 주관주의에 대한 결정적 답

시편 (장절 지정 없음)

종교적 경험의 고전적 표현. 경험 자체는 경건에 필수라는 근거

요한복음 3:3 (암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중생이 필요하다. 프랑크에게서 인정한 진리 (이 절에서는 장절 없이 암시, §154에서 명시 인용)

> **요한복음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5. 신앙, 도덕, 신학: 윤리적-심리학적 방법 (§141–146, 223–232쪽)

이 방법은 슐라이어마허보다 칸트에 더 가깝다. 기독교를 감정·교리·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양심에 호소하는 '종교적-윤리적 힘'으로 본다. 기독교가 도덕적 필요를 채워 주니, 증명 없이도 참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뿌리가 길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영혼의 증언', 유스티누스, 둔스 스코투스, 루소까지 이어진다.

근대에 결정적인 인물은 칸트였다. 그에 따르면 이론이성(사물을 아는 이성)은 하나님·자유·불멸을 알 수 없다. 실천이성(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이성)이 도덕법을 위해 그것들을 '요청'할 뿐이다. 바빙크는 되묻는다. 그 요청이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필연이라면, 왜 그것이 지식이 아닌가? 결국 칸트의 신앙은 “나는 도덕적으로 확신한다”는 개인의 성향에 기댄다. 게다가 초감각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신학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리츨(19세기 독일 자유주의 신학)은 이 흐름을 이어 종교를 가치 판단으로 보았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고백하는 분이 아니라, 역사비평가가 재구성한 예수가 남기는 도덕적 인상이 되었다. 바빙크는 두 가지를 인정한다. “종교를 알려면 계시 안에 서라”는 리츨의 강조는 옳다. 위로를 주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점도 옳다.

그러나 위로가 참됨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모든 종교가 어느 정도 위로를 준다. '가치'는 '참됨'과 같지 않고, 가치 판단은 사실 판단 위에 서야 한다. 또 사람은 계시

강단이 위로 대신 아첨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신앙과 지식을 둘로 쪼개는 이원론은 인간 정신과 세계와 하나님의 통일성을 거스르고, 교의를 경험의 상징으로 축소한다.

1. 칸트: 하나님은 알 수 없고 '요청'될 뿐
2. 요청이 필연이라면 왜 지식이 아닌가
3. 위로는 종교의 면류관이지만 증명은 아니다
4. 가치는 참됨이 아니다, 사실 판단이 먼저다
5. 신앙과 지식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철학적 논증 중심이라 바빙크가 구절을 달지 않았다

> **고린도전서 1:24 (암시)**
> 반대 입장을 묘사하는 대목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표현. 기독교가 필요를 채워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주장
>
> **고린도전서 1: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 **이사야 40:2 (암시)**
>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설교가 마음에 호소하는 대신 아첨할 위험을 꼬집는 배경
>
> **이사야 40: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 6. 신앙과 그 근거 (§147–149, 233–241쪽)

앞의 검토가 보여 준 결론은 이렇다. 증명도, 경험도, 도덕적 만족도 신앙의 가장 깊은 토대는 아니다. 그래도 모든 학문이 그렇듯 신학도 주체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적 원리는 '신앙'이다. “신앙을 통해 이해로”가 신학의 길잡이다. 약속은 믿을 때에만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증명 없는 확실성은 인간 본성에 낯설지 않다. 보지 않은 것을 믿는 일상의 믿음이 가족과 사회, 학문을 떠받친다. 그러나 구원 얻는 신앙은 그것과 다르다. 대상은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오기 때문에 성경에 묶여 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붙잡는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 가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으로 돌아온다.

로마는 신앙을 계시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역사적 신앙')로 보았다. 그리고 사랑이 더해져야 칭의(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심)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종교개혁은 신앙을 성령이 주신, 거듭난 사람의 행위로 보았다. 이 신앙은 지식·동의·신뢰를 모두 품고, 사랑으로 보충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받는다.

이 신앙에는 하나님 자신의 증언에 기댄 고유한 확신이 따른다. 성경은 신앙과 함께 담대함·온전한 보증·기쁨을 말하고, 의심·두려움과 대비시킨다. 로마는 구원의 확신을 거부하지만, 칼뱅과 루터파는 신앙을 확실한 지식으로 보았다. 칸트의 '도덕적 확신'은 이 확신을 대신할 수 없다. 확신은 건강처럼 마음의 정상 상태이고, 머리와 가슴은 나뉘지 않는다.

1. 주체에서 출발해도 주관주의는 아니다
2. 계시를 받는 내적 원리는 '신앙'
3. 구원 얻는 신앙은 성경에 묶여 있다
4. 지식·동의·신뢰, 사랑의 보충은 필요 없다
5. 확신은 신앙의 본래 모습이다

> **로마서 8:24**
>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신앙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다
>
>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히브리서 11:1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요한복음 1:14

많은 이가 예수를 보았지만 제자들만 그 영광을 보았다. 보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16, 에베소서 3:12

담대함. 신앙에 따르는 확신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에베소서 3: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6:11-12, 10:22

온전한 보증

히브리서 6:11-12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9:2, 로마서 5:11, 베드로전서 1:8

마태복음 9: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마태복음 6:31, 8:26, 10:31, 14:31, 21:21 / 마가복음 4:40 / 누가복음 8:25 / 요한복음 14:1 / 로마서 4:20 / 야고보서 1:6

신앙과 반대되는 의심·염려·두려움·불신

마태복음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8: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10: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4: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욥기 19:25, 시편 23편·32편·51편, 로마서 4:20-21, 5:1, 8:38, 히브리서 11장

시련 속에서도 굳게 서는 신자의 확신

욥기 19: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시편 23장 [1]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시편 32장 [1]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

시편 51장 [1]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

로마서 4:20-21 [20]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요한일서 5:4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1:20

아우구스티누스: 창조에 드러난 진리는 내가 살아 있음보다 의심하기 어렵다. 객관 진리에 대한 확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한복음 7:17

칸트 학파가 도덕적 확신의 출발점으로 삼은 구절. 바빙크는 그 안의 진리를 인정하되 종교적 확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 7. 성령의 증언 ① 왜 믿는가 (§150–152, 241–246쪽)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는가?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참됨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모든 것은 토대에 달려 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지적·역사적 증거가 최종 근거가 아니라고 보았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계시의 참됨을 마음 깊이 확신시키신다. 그래서 신앙의 근거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일하시지만, 믿음은 늘 자발적이다. 로마의 수아레스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도 성령의 조명 없이는 복음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건 순환논리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바빙크는 두 겹으로 답한다. 첫째, 일차 대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이다. 이보다 더 깊은 근거는 없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한 증인들인 예언자와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다. 예언의 성취와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이 그 메시지를 뒷받침한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교회를 낳았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내용 자체에서 온다. 이것이 “성경은 성령의 사역으로 스스로 참됨을 증명한다(자증)”는 개혁자들의 뜻이다. 이 증언은 개인의 사적인 조명도 아니고, 지성을 밝혀 주는 조명도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겪는 경험이다.

바빙크는 이것을 창조 질서와 잇는다. 같은 로고스가 우리 안과 밖을 지으셨고, 성령이 모든 생명과 앎의 원천이시다. 그래서 우리 정신은 진리를 만들지 않고 받아서 증언할 뿐이다. 복음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온다. 다만 이것은 비슷함(유비)이지 같음이 아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중생과 특별한 조명이 있어야 한다.

도덕법이 그렇듯 첫 원리는 증명되지 않고 스스로 구속력을 갖는다. 도덕법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도둑질이 잘못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성경의 권위도 그 자체에 근거한다. 장엄한 문체, 예언의 성취, 숭고한 내용 같은 표지는 신자가 내놓을 수는 있어도 신앙의 근거는 아니다.

1. 신앙의 근거는 성령의 내적 증언
2. 순환 비판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3. 하나님은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4. 성경 권위는 교회 결정이 아니라 내용에서
5. 첫 원리는 증명되지 않는다. 성경도 그렇다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신실한 증언. 하나님이 증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덧붙인 답'의 근거

[1]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

요한복음 1:3, 골로새서 1:15-17

같은 로고스가 만물을 지으셨다. 앎에서 주체와 객체가 맞아떨어지는 근거

요한복음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15-17 [15]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세기 1:2, 시편 33:6, 104:30, 139:7, 욥기 26:13, 33:4

성령은 모든 생명의 원천

창세기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104: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39: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욥기 26:13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욥기 33:4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 32:8, 이사야 11:2

성령은 지적·윤리적·종교적 삶의 원천 (본문 인용란에는 '외 2곳'으로 줄어 있음)

욥기 32:8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사야 11: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요한복음 3:32, 18:37

예수는 보고 들은 진리를 증언하셨다

요한복음 3: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 18: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5:27, 요한일서 1:3

사도들은 보고 만진 생명의 말씀의 증인. 진리가 우리를 찾아와 증인으로 만든다

요한복음 15: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일서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레미야 31: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25 이하 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

요엘 2:28 이하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

요한복음 15:26, 16:14

약속된 보혜사

요한복음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부어진 영. 거듭남과 특별 조명의 근거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

“성경은 자증적(αὐτοπιστος)이고, 따라서 신앙의 최종적 근거다.”

📜 8. 성령의 증언 ② 반론과 범위 (§153–155, 247–251쪽)

이 결론은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무슬림도 코란에 같은 논리를 쓰지 않는가? 바빙크의 답은 이렇다. 불신 역시 마음에 뿌리박은 것이다. 증거와 논증은 신앙과 불신 양쪽에 영향을 주지만 어느 쪽에도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니 신자가 불리할 게 없다. 하나님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도 알려지셨다. 그리고 성령의 증언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교회의 보편적 증언이다.

회심은 지성의 통찰이나 의지의 결단이 아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능력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이다. 그렇다고 강요는 아니다. 새로워진 의지가 기꺼이 믿게 되는 것이다. 눈이 해를 보는 순간 그 실재를 확신하듯, 거듭난 사람은 계시가 참됨을 '본다'.

신자 안의 의심과 육의 싸움은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이 내 본성이나 삼단논법,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다. 성령이 주시는 첫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성령의 증언은 성경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죄를 깨우치고, 거듭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양자 됨을 보증하는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의 일이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증언이다. 그 가운데 성경에 대한 증언의 대상은 성경의 진정성·정경성·영감이 아니라 성경의 '신성', 곧 신적 권위다. 사도들의 증언을 영감하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신다. 조명은 새 진리의 원천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성을 깎는 비평은 학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양자 됨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약화시키는 종교적 문제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시므로, 성경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함께 자라고 줄어든다. 교파 간 차이에도 성경론의 일치는 삼위일체 교리보다도 크다. 합리적 증명 없이 위엄으로 다가오는 성경은 가장 큰 지성들까지 굴복시켰다. 이것이 성령의 증언이 가진 탁월한 변증적 가치다.

2. 성령의 증언은 사적이지 않고 교회적이다
3. 내 안의 의심은 신앙이 선물이라는 증거
4. 증언의 대상은 영감·정경성이 아니라 신적 권위
5. 성경론은 교회의 가장 넓은 일치점

로마서 1:18 이하

진리를 막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불신도 마음의 문제라는 근거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고린도후서 10:5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회심은 지성·의지를 넘어서는 능력의 일

>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시편 35:3 (암시)

“나는 네 구원이라”. 성령만이 영혼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

> **시편 35:3**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예레미야 6:14 (암시)

거짓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탄의 속삭임과 성령의 증언을 대비

> **예레미야 6:14**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로마서 8:15-16 (암시)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양자의 영. 하이데거 인용의 배경

> **로마서 8:15-16**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요한복음 14:17 (본문 표기는 14:7)

진리의 영이 진리로 인도하신다. 문맥상 14:17로 보임, 확인 필요

요한복음 14: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5:26, 16:14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요한복음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6:8-11

죄를 깨우치심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한복음 3:3

거듭나게 하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3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심. 신앙 자체가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14 이하, 고린도후서 1:22, 5:5, 에베소서 1:13, 4:30

양자 됨과 하늘 기업의 보증(인치심)

로마서 8:14 이하 [14]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

고린도후서 1:22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2:12, 요한일서 2:20, 3:24, 4:6-13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알게 하심

고린도전서 2: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3: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6-13 [6]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7]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

갈라디아서 5:22, 고린도전서 12:8-11

그리스도인의 덕과 은사의 주인

갈라디아서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고린도전서 12:8-11 [8]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6

“성령은 진리”. 성경 권위를 보증하는 성령의 증언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 9. 신앙과 신학 (§156–160, 252–260쪽)

신자에게는 성령의 증언으로 충분하다. 학문적 신학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데도 교회는 초창기부터 신학을 낳았다. 반대로 “머리보다 가슴과 손”을 외치는 반신학 전통도 길다. 테르툴리아누스, 초기 종교개혁의 실천 강조, 재세례파와 경건주의가 그렇다. 하르낙 같은 이들은 교의 자체를 그리스 철학이 복음을 왜곡한 산물로 보았다.

바빙크는 신학이 겸손을 잃고 사변에 빠진 적이 많다는 불평은 맞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오용이 사용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답한다. 신학을 버리면 기독교는 감정이나 도덕으로 줄어든다. '순수한 복음'을 찾다 보면 정경 속 정경에 빠진다. 성경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진짜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보편교회와의 교제가 끊기고, 결국 바울과 요한까지 '수술'하게 된다.

신학은 철학을 시녀로 골라 쓰되 계시로 시험한다. 칼뱅은 철학을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로 보았다. 신앙과 신학은 본질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둘은 같은 원리(하나님의 말씀), 같은 대상(하나님에 대한 지식), 같은 목표(하나님의 영광)를 나눈다. 신앙은 신학을 세속화에서 지키고, 신학은 신앙을 분리주의에서 지킨다.

신앙은 이성 옆에 있는 다른 기관이 아니라 이성의 건강한 습관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고립된 몇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교의를 유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미지, 비유, 의례, 역사까지 포함해서다. 그 일을 위해 성경에 없는 용어를 쓸 수도 있다. '삼위일체'라는 낱말이 그 예다. 덜 성경적이려는 게 아니라 더 성경적이기 위해서다.

끝으로 신학은 겸손해야 한다. 신약이 말하는 '비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감추어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지가 아니라 죄다. 그래서 신앙은 경이로, 지식은 경배로, 고백은 찬양으로 끝나되, 신앙은 곧 영생이라는 진실이다.

2. 오용이 사용을 없애지 않는다
3. 신앙과 신학은 본질 아닌 정도의 차이
4. 교의는 고립된 구절이 아닌 성경 전체에서
5. 신학의 끝은 경이와 경배와 찬양

로마서 12:3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신학의 사변을 경계하는 근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3:12

거울로 보듯 희미하다. 이 땅의 지식은 부분적이다 (본문은 암시, 각주 59에 명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복음 16:13 (암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성령의 약속. 교의의 역사 전체를 탈선으로 보면 이 약속이 헛것이 된다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로마서 12:1

'합당한(이성적) 예배'. 신앙과 이성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의 '비밀'은 감추어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구원 계획

마태복음 13: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로마서 16:25-26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에베소서 1: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3: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골로새서 1:26-27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린도전서 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요한복음 17:3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앙은 생명인 지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오해와 반론** ⌄

외적 원리·내적 원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깥에서 오는 쪽(계시, 성경)과 그것을 안에서 받는 쪽(성령이 주시는 신앙)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성령의 내적 증언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일이다. 새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자증(αὐτοπιστος, 아우토피스토스)

성경이 다른 무엇의 보증 없이, 성령의 사역으로 스스로 참됨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Deus dixit)

“왜 믿는가”에 대한 가장 깊은 대답이자, 성경론을 포함한 모든 교의의 첫 원리다.

변증

신앙을 공격에 맞서 설명하고 변호하는 일이다. 바빙크는 이것을 신앙 다음에 오는 일로 본다.

자연신학

성경 없이 자연과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려는 신학이다.

역사적 신앙과 구원 얻는 신앙

앞의 것은 성경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데 그치는 믿음이고, 뒤의 것은 성령이 주셔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이다.

지식·동의·신뢰

종교개혁이 말한 신앙의 세 요소다. 내용을 알고, 참되다고 인정하고, 나를 맡기는 것이다.

신앙주의와 주관주의

신앙주의는 이유나 지식 없이 그냥 믿으면 된다는 태도이고, 주관주의는 진리의 기준을 내 경험이나 의식에 두는 태도다. 바빙크는 둘 다 거부한다.

진정성·정경성·영감·신성

진정성은 각 책이 정말 그 저자와 시대에서 왔는가, 정경성은 어떤 책이 성경 목록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갖는 신적 권위다. 바빙크는 성령이 직접 증언하시는 대상을 '신성'이라고 본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지성(증거·사변), 감정(경험), 도덕(양심·가치)은 신앙의 조각을 주지만 신앙의 최종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 계시를 받는 내적 원리는 신앙이며, 구원 얻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성경을 함께 붙잡고 고유한 확신을 가진다.
- 그 확신의 근거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고, 성경은 자증적이며, 모든 교의의 첫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이다.
- 성령 증언의 대상은 성경의 신적 권위이며, 이 증언은 사적이지 않고 교회 전체에 공통된다.
- 신앙과 신학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신학은 성경 전체에서 겸손하게 세워져 경배로 끝나야 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5편 · 계시를 뒤집은 현대신학 · 이성·역사·체험이 말씀 자리에 앉다
- 성경론 13편 · 성령의 내적 증거 · 확신은 어떻게 오나
- 성경론 21편 · 종이에서 마음으로 · 설교, 성례, 마음에 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